

테마칼럼

남도의 재발견 도시와 삶 건강과 생활 교육을 생각한다

목포의 눈물



김세곤

목포의 눈물. 우리나라 대중가요사에 이 노래처럼 브랜드 파워 있는 가요도 드물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18번이면서 해태 타이거스 야구단의 응원가이기도 한 목포의 눈물. 한과 애환이 서려있는 목포의 눈물은 조선의 눈물이다.

주말에 목포를 간다. 국민가요 '목포의 눈물' 흔적을 찾아서. 차 안에서 이난영이 부르는 노래를 듣는다. '사공의 뱃노래 가물거리며 삼학도 파도 깊이 스며드는데 부두의 새악시 아롱 젖은 옷자락 이별의 눈물이나 목포의 설움' 한(假) 많은 아낙네의 남도처럼 흐르는 열매지, 이난영 특유의 코맹맹한 목소리가 더욱 구슬롭다. 그녀의 가녀린 몸매만큼이나 예절만 화창하다. 그래서 그런지 유난히도 관광객이 많다. 이순신 장군 동상과 오프대를 지나서 목포의 눈물 노래비에 이른다. 거기에는 이난영이 부른 노래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예전에는 '목포의 눈물'만 들었는데 지금은 '목포는 항구다', '해조곡' 등 여러 곡이 들린다. 노래비에는 시대에 따라 바뀐 '목포의 눈물' 가사가 적혀 있고, '살아있는 보석은 눈물입이다. 남쪽 하늘 아래 꿈과 사랑의 열매를 여기 심습니다.'라고 써 있다. 눈물이 살아 있는 보석이라. 이난영 노래비에서 목포 시가지를 내려다 보니 새로 복원되었다는 삼학도가 제법 잘 보인다. 섬 세 개 봉우리가 선명하다. 절심을 먹고 삼학도를 찾았다. 삼학도는 올해 3월에 어느 정도 제 모습을 되찾았다. 소 삼학도, 중 삼학도가 복원되었고 바닷길이 만들어졌다. 3마리의 학이 내려앉아 섬을 이루었다는 아름다운 전설이 있든 섬. 거기에는 애틋한 그 무엇이 스며 있는 듯하다.

조금 있다가 대 삼학도 종턱에 있는 난영 공원을 들었다. 이곳에 '목포는 항구다' '목포의 눈물' 노래비가 있다. '목포는 항구다' 노래비 뒤에는 이난영의 약력이 적혀 있다. 본명은 이옥래. 1916년에 목포 양동에서 태어나 북교초등학교를 중퇴하였고 1935년에 '목포의 눈물' 노래를 불렀다. 이 노래가 대박을 터뜨렸다. 레코드판이 5만장이나 팔렸단다. 단 한 번에 최고의 인기가가가 된 그녀는 1942년에 '목포는 항구다'로 또 한 번 히트를 쳤다. 그런데 1950년 6·25 전쟁이 터지고 작곡가인 남편 김해송이 납북되었다. 이 후 그녀의 시련이 시작되었다. 비운의 가수, 눈물의 여왕이 되어 힘들게 살다가 1965년에 세상을 떠났다. 이때가 그녀의 나이 49세. 그녀는 타향 땅 경기도 파주시 공동묘지에 쓸쓸히 묻혔다가 40여년 만에 그리운 고향 목포로 돌아온다. 2006년 3월에 조성된 '목포의 딸' 가수 이난영 공원에 수목장으로 안장되었다. 그녀는 빨갛게 백일홍 꽃이 피는 배롱나무 밑에 잠들어 있다. 버튼을 눌렀더니 이난영의 노래가 흘러나온다. 여기에서 그녀의 노래를 들으니 더욱 구슬프다. 70세도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 네 분이 공원 주위를 산책하고 있다. 이들은 이 노래를 들으면서 무엇을 느낄까. 향수에 젖을까. 지나 온 삶을 돌아볼까. 내친김에 이난영이 살았다는 양동을 간다. 가는 길에 그녀가 중퇴한 북교 초등학교를 보았다. 이 학교는 김대중 전 대통령도 다니었다. 정

명여고 뒤편에 있는 이난영 생가터에는 소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그녀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다시 목포 근대역사관으로 발길을 돌렸다. 이곳에서 1930~40년대 목포 시가지 사진을 보았다. 삼학도 섬 3개가 뚜렷이 보인다. 목포 근대역사관 옆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었다. 2층에서 보니 유달산이 더 잘 보인다. 이난영의 노랫소리가 여기까지 들린다. 목포의 눈물. 우리나라 대중가요사에 이 노래처럼 브랜드 파워 있는 가요도 드물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18번이면서 해태 타이거스 야구단의 응원가이기도 한 목포의 눈물. 몇 년 전에 여행한 중국 단둥의 북한 식당에서도 북한 아가씨가 이 노래를 불렀다. 한과 애환이 서려있는 목포의 눈물은 조선의 눈물이다. 눈물은 카타르시스이다. 눈물은 응어리를 풀어낸다. 정화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노래가 불러진지 75년이 넘는 지금에도 끈질긴 생명력으로 우리 가슴에 남는다. 광주로 돌아오는 차에서 다시 노래를 듣는다. 삼학도. 부두의 새악시, 유달산, 목포의 설움, 목포의 눈물, 목포의 사랑. '삼백년 원한 품은 노적봉 밑에 남 자취 완연하다 애달픈 정조 유달산 바람은 영산강을 안으니 남 그려 우는 마음 목포의 눈물'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금호타이어 정상화' 신뢰 회복이 우선이다

금호타이어 노사가 두번째로 마련한 집단협 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과함으로써 워크아웃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회생의 길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 노사는 22일 광주공장에서 집단협 조인식을 갖고 합의안에 최종 서명했다. 이로써 회사 회생의 발판이 마련되고 280여개 협력업체를 비롯한 지역 경제계와 지역민들도 안도의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채권단은 노조의 구조조정 동의를 서둘러서 체결되도록 긴급 자금 1천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3천만달러 규모의 신용장 한도 개설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긴급 자금지원이 이뤄지게 되면 4개월 동안이나 밀린 종업원들의 임금 지급되고 중단됐던 공장 가동도 조만간 정상화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자금난으로 버랑 끝에 몰린 280여 개의 협력업체에도 숨통이 트이게 됐다. 우리는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발짝씩 양보해 합의를 이끌어 낸 노

사 모두에게 격려와 박수를 보낸다. 만약 노사협상이 결렬돼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고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다면 노사는 물론 지역경제의 파국은 불 보듯 했다. 따라서 노사가 막판까지 인내하며 협상을 타결시킨 것은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이번 금호타이어의 노사 합의는 여러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다.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회사의 경영력 확보 방안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마련하고 노무비율 경쟁사 수준으로 낮춘 점 등은 워크아웃 기업에게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금호타이어가 정상화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채권단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당장, 채권단은 신속한 자금 지원을 통해 가동이 중단된 광주 1공장과 곡성 1공장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회사 측 역시 그동안 시장에서 잃었던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재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철저한 방역으로 구제역 전남 확산 막아야

구제역이 충북 충주까지 번지면서 축산 농가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8일 강화에서 발생한 지 2주만에 내륙 깊숙한 곳까지 번져 전국적인 확산이 우려된다. 이번 구제역은 확산 속도가 과거 어느 때보다 빠르고 피해도 크다. 더욱이 충주에서는 구제역 바이러스 전파력이 100~3천배에 이르는 돼지가 감염된 것으로 드러나 방역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정부가 구제역 위기경보 단계를 최상위 수준인 '심각(Red)'으로 격상시키고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대책 본부를 설치토록 조치한 것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서다. 이번에도 당국의 방역체계가 허술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내륙으로의 상륙 방지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실패했고, 경기 김포시로 퍼지자 추가적인 확산 차단에 나섰지만 이미지도 뚫렸다. 더욱이 아직도 전역 경로 등이 정확

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구제역 감염 경로나 매체가 파악되지 않으면서 '사후 약방문식' 방역에 급급한 실정이다.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알려진 광주·전남지역에도 비상이 걸렸다. 지역 축산 농가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일제 소독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구제역은 죽어서 매몰하는 살(殺)처분이 유일한 예방수단이다. 그래서 초동 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등 큰 피해를 주고 있는 동물 전염병의 방역체계를 총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구제역이 발생하면 축산물의 해외 수출길이 막히고 국가 이미지에도 타격을 불가피하다. 특히 해당 축산농가는 재기가 어려울 정도로 큰 피해를 보게 된다. 살처분 보상 수준이 실제 피해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불만이 높다.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에 대한 지원대책도 현실화되어야 한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중고칼럼



변선스님

탁한 세상, 무소유를 말하며 법정스님의 맑고 향기로운 향기가 지난 자리에 봉은사 문제로 어지러움만 가득하다. 1990년 이후 불교계는 몇 차례의 선거 과정에서 호된 흥역을 얻었다. 1992년에는 의현 당시 총무원장이 김영삼 후보의 당선에 위해 마치 선거참모처럼 변 일도 있었다. 불교계의 유력 인사가 특정 정당의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이를 보도하려는 언론에 두 손을 비벼야 하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다. 이후 선거 때마다 대통령이 되려면

수행에 방해가 되도록 권력자를 가까이하지 말라는 경계도 나온다. "출가인은 왕을 가까이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왕을 가까이하는 사문은 모든 세인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며 공양받지 못한다. 왕을 가까이하는 못된 사문은 재물을 바라며, 성이나 마을 혹은 사람이 많은 곳에서 항상 재물을 구하며 만족할 줄 모른다." (정법염처경) 그러나 찾아와 법을 청하는 권력자를 멀리하지는 않았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왕들로부터 공양을 받았으며 법을 설했

불교와 정치권력

이른바 삼심(民心,天心,佛心)을 얻어야 한다며 산사에 찾아와 인사하는 유력 대권주자들을 보게 된다. 경전에서는 불교와 정치의 바람직한 관계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 먼저, 불교와 정치의 관계를 얘기할 때 금과옥조(金科玉條)처럼 인용하는 관용어가 있다. "출가인의 법은 국왕에게 예배하지 않는다"라는 '법망경'의 가르침이다. 이후 이 가르침은 중국으로 들어가 '사문불경왕자론(沙門不敬王者論)'이라는 저술로 정리된다. 여기에서 왕자란 권력자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정치의 정점에 서서 권력과 자원을 분배하는 데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집단까지도 포함된다. 이 책에서 출가자가 왕에게 예배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또한, 사악한 왕(권력)에 대한 태도는 매우 단호하다. 추방시키라고 가르치고 있다. "예를 들면 왕이나 왕의 대제사장이랄지라도, 누구든지 극도로 포악하며 지비심이 없고 오로지 타인을 핍박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구도자는 힘과 동정심으로 이익과 안락을 줄 마음을 품고 그에 머무르며 그에 의거하여 많은 죄악을 짓게 하는 왕위, 권세, 지배권에서 왕이나 권력자들을 추방시켜 버려라." (보살지자경)

다. '불소행찬'에서는 왕에게 수행자의 처소를 찾아 예경하고 법을 구하라고 권유하고 있다. 정치에 대한 불교의 지도적 위치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물론, 경전의 가르침을 현실화되기 위해 현실은 너무 복잡하다. 불교가 정치에 대해 갖는 관점은 참여적이면서도 갈등을 순화하는 이상을 제시하는 것이다. 불교 교단은 오늘의 정치제도, 사회제도가 지향해야 할 이상적 형태의 모범을 제시하는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즉, 불교 각 종단의 민주적 자율적 운영과 사부대중의 화합이 불교 자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치 사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발전을 위한 모범으로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불교는 정치 세계의 이기심과 투쟁심을 완화, 해탈시키고 화합의 정치, 청렴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봉은사 문제는 종교와 권력이 필요 이상으로 접근착해서 정치권력은 청정하지 못한 종교를 신비화시키고, 종교는 부도덕한 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한 대표적인 사건이 되고 있다. 이제 종단 지도자와 안상수 대표가 묵인 수행을 하고 세상의 의문에 답할 때이다. (무등산 문민정사 주지)

채택된 원고는 고로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기고



문봉주

프랑스 남동쪽 프로방스지역 알프코트다쥐르주에 위치한 '칸(Cannes)'이라는 도시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베네치아, 베를린 영화제와 함께 세계 3대 국제영화제 중 하나인 '칸 영화제'가 열리는 곳이다. 해변의 작은 마을에 지나지 않던 칸느가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그 기저에는 바로 이 '칸 영화제'를 비롯한 문화산업이 있다. 최근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인 '아바타'가 역대 최고의 흥행 영화가 됐다고 한다. 무려

지향하는 '국제문화창의산업전(ACE Fair, Asia Content & Entertainment Industry Fair)'라는 문화콘텐츠 종합전시회를 기획한 바 있다. ACE Fair는 방송, 영상, 게임, 캐릭터, 애니메이션,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콘텐츠 산업의 발전과 교류를 촉진하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광주의 핵심전략 브랜드 전시회로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올해 5회째 개최되는 국내 최대 문화콘텐츠 종합전

문화수도의 발판 '국제문화창의산업전'

18억9천740만 달러의 수입을 올려 과거 박스오피스 1위였던 '타이타닉'의 18억4천320만 달러를 넘어선 것이다. 이 영화 아바타의 흥행성공과 더불어 덩달아 화제의 중심에 선 주제가 바로 '3D'이다. 앞서 언급한 칸은 '문화로 먹고 사는 대표적인 도시'로 1년 내내 다양한 축제를 준비하며 온 도시가 먹고 산다. '아바타'라는 영화는 단순한 영화로 끝나지 않고 3D로 구사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의 발전까지 견인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문화산업의 파급효과이며, 고급문화인 것이다. 이러한 문화산업을 견인하기 위해 광주시 직원들도 밤낮없이 뛰고 있다. 문화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차세대 고성장산업이며 국가발전의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논의가 한창 무르익던 지난 2006년, 문화로 밥 먹고 사는 도시 '아시아의 칸'을

시화로, 올해는 오는 9월9일부터 12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ACE Fair는 지난해 국제전시연합(UFI)의 인증을 받은 국내 유일의 문화콘텐츠 전시회이며, 지난해 24개국, 292개 업체, 국내외 바이어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수출상당가를 통해 해외 바이어와 메이저 참주사 등 100여개사가 1억달러 상당의 상담실적을 올리기도 했다. 올해는 지난 4년간의 노하우를 통해 광주에서 세계의 트렌드를 읽어낼 수 있는 'ACE Fair 트렌드 포럼'을 신규로 창설했으며, ACE Fair의 브랜드 이미지가 강화될 수 있도록 마크도 개발 중이다. ACE Fair가 한발 더 발전하여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 전시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줄 것을 기대한다. <광주시 문화체육정책실장>

정곡·조곡·산물벼·쌀 관련 용어 쉽게 풀어 썼으면

매스컴에서 쌀에 관한 이리저리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쌀과 관련한 용어가 너무 어렵고 헷갈린다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면 쌀 용어 중 정곡, 조곡, 산물벼, 품위, 제현을 등 단어 자체만으로 뜻을 파악하기 힘들다. 요즘 인터넷에 들어가면 산물벼와 제현을 같은 단어는 인터넷에도 잘 나오지 않는다. 친환경농산물 용어도 그렇다. 유기농업, 무농약, 무항생제, 저농약 농산물 등 비슷한 이름만도 4종류나 되고 축산분야도 마찬가지로

지로 어렵고 복잡하다. 전국의 농민들이 대체로 노인이고 부녀자만 있는 게 농촌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이 같은 어려운 용어는 즉시 고쳐서 쉽게 만들고, 불필요한 용어는 버리고, 중복되는 것은 단순하게 통일시키는 게 맞다고 본다. 농촌 관련 용어부터 어렵다면 일반 국민들이 농업에 대한 관심도도 떨어질 것이다. 누구든지 쉽게 알고 접근할 수 있어야만 그만큼 농촌에 대한 사랑도 더 깊어질 것이다. ▲민경화·광주시 광안구 산정동

無等鼓

요즘을 판매도 되기 전에 사람들이 애타게 하는 물건이 하나 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애플이 만든 아이패드다. 아이폰을 세상에 내보 메가트렌드도 만들어버린 스티브 잡스의 또 하나의 마술상자다. 지난 4월 초 미국에서 발매돼 열광적인 반응과 함께 벌써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그래서 미주지역 외의 판매는 미뤄지는 모양이다. 당장 다양한 것은 아이패드를 손꼽아 기다리는 한국의 얼리어답터들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뜨거운 반응은 보이는 이유는 뭔가? 아이패드는 알고 보면 여타 태블릿 PC와 별반 다를 게 없다. A 4 용지보다는 작은 9.7인치 화면에 버튼도 단순하고 덩그러니 화면만 있다. 하지만 실제 아이패드는 컴퓨팅환경을 확 바꿀 메가트렌드의 DNA를 가지고 있다. 바로 그것은 소파(SOFA) 디바이스라는 점이다. 우선 아이패드는 보는(See) 것에 최적화돼 있다. 영화를 보거나 전자책을 보는 데 유용하다. 또 한 손으로(One

handed) 들고 쓸 수 있어 편리하다. 아이패드는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담아 가족(Family)을 하나로 묶어주는 따뜻한 통로가 될 수 있다. 아이패드는 언제나(Always connected) 무선 인터넷환경에 연결될 수 있다. 말 그대로 소파에 편히 앉아 정보를 얻고 세상과 소통하며, 문화를 즐기며, 가족과 대화하는 시대, 컴퓨팅이 바로 생활이 되는 시대를 열고 있다. 일부에선 아이패드의 도래를 '찾자 속의 태풍' 정도로 폄하하는 분위기가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선 IT 재국주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최근 자사 스마트폰이 있음에도 아이폰 콘텐츠를 등독한 삼성의 예에서 보듯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해서 아이패드와 같은 메가트렌드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받아들일 것이 있다면 능동적으로 수용해 아이패드를 뛰어넘는 새로운 문화 디바이스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김일환 여론대체부장 kih8@



Table with 2 columns: 광 卍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publication details.